

사 모 곡

- 현대불교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수상작 -

현대불교신문사장상 / 류영식 (광주시 북구 동림동)



그림 · 문병성

출발과 희망을 노래하는 개나리가 피어나는 봄이 대지를 녹이고 나면 연록색의 대자연은 질푸른 몸짓으로 폭양을 내리칩니다.

때론 질풍같이 몰아치는 폭풍우를 먹고 자라 알알이 영그는 계절은 황금빛 자연으로 화(化)하여 우리네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가을이라는 단어로, 게으른 자에게는 허탈을 부지런한 자에게는 결실의 아름다움을 한량없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등산 기슭 산사에서 실바람에 한잎 두잎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으악새의 애절함과 만추에 취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무엇을 말하는지, 으악새의 사연은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조심스럽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개나리꽃 핀 봄엔, 그 여름엔, 그리고 이 만추에...

몇 살 때인지 확연히 알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간간히 사물을 찾으시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전남 고흥군에 자리할 수도 암이란 암자에 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등에 업고 그 암자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친구들은 사물의 신장이나 행화를 무시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먼 곳까지 어머니 따라 왔다고 하며 예배해 주시고, 스님이 쓰시던 엽주나 묵묵을 만지며 놀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스님이 가끔씩 노래했고, 귀동냥으로 들었던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저 나름대로 흥얼대면서 친구들에게 스님 흉내도 곧잘 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절이 된지, 합장이 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절에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머리에 이고 가신 것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

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소리에 스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는 기쁜 마음에 법당으로 뛰어 들어가 어머니보다 먼저 스님께 삼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저에게 자상하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첫 스승은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사찰을 찾으셨던 날이면 저 혼자 사찰에 가게 되었고, 법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절에서 내려오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서는 어떠한 경전도 제대로 알고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만추에 단풍들이 있는 산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들이, 어머니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만치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말고 있는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광주지역 제9대 회장직은 을유년과 함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동안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육바라밀행을 닦아 보현행원으로써 맑고 밝게 나와 이웃을 함께한다는 부처님 법을 설행(示行)으로써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너와 내가 따르가 아닌 한국운 불련 광주지역회 회원 그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해 연꽃과 같이 아름답게 지역불교 포교에 매진하기를 발원합니다.

늘 해움이 헛되지 아니하여, 바다 건너

이, 그리고 창공이 말을 하느냐고, "어때졌 들으려 해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데요?" 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앞서 어머니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들 나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 때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지만 그런 질문을 해 보지도 않았고 해보려고도 못했었는데 하고서 말입니다.

아들이 기특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질문을 저에게 건네는 아들 녀석이 너무 기특하고, 그런 아들이 있게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만약 글을 모르는 것을 무식하다고 한다면, 저의 어머니는 무식한 분이였고, 그런 무식한 분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눈동자에서 진실을 배웠고, 그분의 무릎에서 인생을 배웠고, 그분의 손길에서 정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애정을 배웠습니다.

제 인생의 최초의 스승인 어머니께서 지금은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제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지켜보시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제가 자만에 들떠할 때면 자숙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려 할 때면 맑은 정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곁에는 늘 <부모은중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무식하지만 다정했던 나의 어머니! 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저의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뵈을 날까지, 저는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 합장정례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무등산 기슭의 해가 서산에 저물어 가고,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으악새 소리가 푸른 낙엽이랑 합창으로 이만 하신나라 합니다. 입어서서니 열두살 아들 녀석이 목청껏 <반야심경>을 영송하면서 앞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니 아들이 더욱 기특히 여겨졌습니다. 아들 손을 꼬옥 붙잡고 심오리가 넘는 산길을 들어서 걷다보니 어느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야 커다란 가르침 깨우쳐

'달리는 법당서 열심히 포교' 서원

는 오직 가족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깨달음과 함께 저는, 저승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의 큰 법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경전 한 구절, 법문 한 장이라도 행하든 무서워했는데 저는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 없이도 너 혼자 사찰을 찾아 부처님 전에 공양올리고 바르게 살았구나"하고 칭찬하는 말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교와 관계되는 서적과 법요집을 뒤적였습니다. 법회가 있으면 법사님의 법문을 요약해 노트에 정리해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법문 노트가 3권으로, 앞으로 몇 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날 전해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한라부터 진주 남강을 건너 마·창·진을 지나 부산의 해운대, 포항을, 울산의 태화강변을 건너,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을 돌아 대구의 팔공산 깎바위를 휘어잡고, 대전의 한밭을 가로질러 전주의 효자동에서 천안의 늘어진 수양버들 아래서 잠시 쉬었다 안양, 제천, 수원, 의정부를 거쳐 청주, 충주를 돌아보면서 원주의 치악산 구룡사의 범종이 장엄하게 울릴 때까지 한국 운불련은 씬없이 정진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두의 천지가 넘실대는 날까지 한국 운불련은 3천여 가족과 함께 할 것이며 그 시작은 무등산 기슭에서 병술년의 햇살과 함께 더 힘찬 행보가 시작 되리라 삼보 전에 서원해됩니다.

마침 저만치에서 앉아있는 아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산전은 날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날보고 티 없이 살라" 했는데 "어떻게 산천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배게볼 1인용 350-480원 → 450,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신비의은행석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 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놓으면 놓으면 배를 부는데도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놓으면 배를 부는데도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놓으면 배를 부는데도 죽어갑니다.

생명의 빛/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받아 놓으면 놓으면 배를 부는데도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놓으면 배를 부는데도 죽어갑니다.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억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항상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타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 **자세법** : 기부와, 반기부와, 평좌, 무릎 꿇기, 고두레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정좌자세, 일어서 자세, 행선, 좌선
- ◆ **호흡법**
 - 들숨 :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용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 가슴과 깊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닐핀, 토프라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가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쉬자게 잘 쉬는 법 · 절을 하자게 잘 하는 법」 참고비판 (정신수련 기원)

- 몸과 숨의 감각이 순간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바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킴푸터 · 수형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호흡이 나오면 호흡수련을 잘못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 코끝에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항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부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 건조, 피부거칠, 이토프,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할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비판)

◆ **수련일시**

- 서울 군자법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부산 금정법당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청 건 스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회 확장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경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승가사

대한불교조계종

주지 정호
사부대중일동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 1번지 / 전화 02)379-2996